

8년째 명절선물 보내는 익명의 기부천사

춘천의 한 경로당에 8년째 이름 없는 천사의 아름다운 기부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을 1주일 가량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춘천시 삼천동 경로당을 찾은 윤순희(여·85)씨는 경로당 앞에 놓은 사과 3상자와 커피 2상자 등을 보고 활짝 웃었다.

올 들어 흑시나 했는데 역시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로당에 이름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진 것은 2009년 이후 벌써 8년째. 2009년 여름 폭염에 지친 노인들을 위해 배달된 수박 10통이 시작이었다. 이어 같은 해 추석에는 많은 양의 떡과 과일, 돼지고기 등이 선물로 도착했다. 이때만 해도 경로당 노인들 사이에서

매년 경로당에 전달한 모 건설사 대표 이름 밝히기 꺼려



◇춘천 삼천동 경로당에서 10여명의 노인이 지난달 29일 이름 없는 천사가 기부한 선물과 기념촬영을 했다.

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누군가의 선심성 기부러니 생각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도 8년간 명절이나 복날 등이면 경로당 앞은 항상 선물로 가득했다. 윤씨는 “요즘처럼 팍팍한 세상에 남까지

챙겨줘 매년 미안하고 고마울 정도”라고 했다. 최근 경로당 노인들은 풀레 배달을 담당했던 업체 직원을 오랜 시간 설득해 이름 없는 천사가 누군지 확인했다. 주인공은 인근에서 중소 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A씨

였다. 노인들은 곧바로 식사 초대와 봉사 표창장 등을 제안했지만 A씨는 한사코 거절했다고 한다.

실제 설을 앞둔 1일 직접 찾아간 A씨의 사무실에서 A씨와 직원들은 다른 경로당과 보호시설 등에 전달할 과일 포장으로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한 A씨는 “조용히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나가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손성수 삼천동 경로당 사무장은 “8년간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돈보다 꾸준히 노인들을 위해 선물을 지원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춘천=한재건기자 one82@



호반건설 불우이웃돕기 쌀 기탁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사인 호반건설 민영모 상무(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백중수 부시장(사진 가운데)에게 불우이웃돕기 쌀 1,400kg을 기탁했다.

도, 5조1116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강원도는 올해 도 본청과 시·군의 조기집행 예산액 9조 538억원 가운데 5조 1116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 본청은 조기집행 예산 4조3916억원 가운데 2조5472억원을, 시·군은 조기집행 예산 4조6622억원 중 2조5644억원

을 상반기 집행 목표로 각각 설정했다.

도는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해 일일실적관리와 부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군별로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백오인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



은 2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건설협회 제4차 이사회'에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올해부터 전 사업장 시행·미지급 사례 감소 기대

올해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강원도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모든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도 이달 중으로 개정되며 체불임금도 1개월 내로 지급된다.

이밖에 당정은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며 "하청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 동 정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대한건설협회 제4차 이사회'에 참석한다.

춘천 삼천동 수변 '신 관광타운' 탈바꿈

헬로키티 테마파크·로프웨이 탑승장 조성 특급호텔 유치맨 유동인구 연 수백만 기대

춘천 삼천동 의암호 수변이 대형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신(新) 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춘천시는 이 일대에 세계적인 캐릭터 테마파크인 헬로키티아일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 탑승장이 들어서고 컨벤션센터를 겸한 특급호텔 유치가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헬로키티아일랜드는 제주에 이은 국내 2호로 사이클경기장에 1만7000㎡ 규모로 오는 2018년 1월 준공될 예정이며 연간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악산 로프웨이 탑승장은 옛 국공장에 2만7000㎡ 규모로 2019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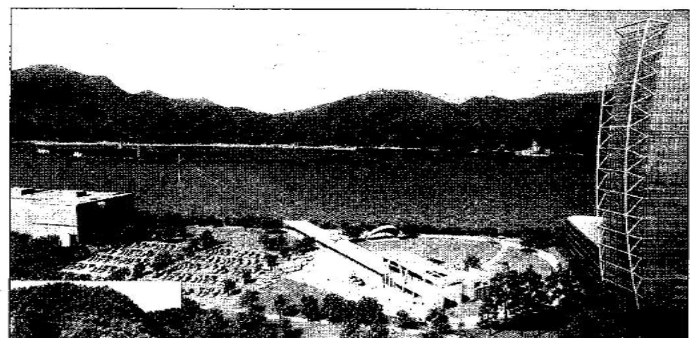
될 계획이다. 삼악산 로프웨이 길이는 이곳부터 삼악산 7부 능선을 잇는 3.6km로 국내 최장이고,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 로프웨이 시설이다.

삼악산 로프웨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형을 포함, 캐빈 52대를 가동할 경우 1일 1만2400명, 연간 127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사이클경기장 옆 승마장은 특급호텔 유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컨벤션센터를 겸한 특급호텔의 부지는 5만1000㎡다.

춘천시는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H사와 협의를 벌이



춘천 의암호 수변 옛 국공장에 들어설 삼악산 로프웨이와 그 옆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특급호텔 조감도.

고 있다. 특급호텔은 1000억원대 사업비를 들인 객실 350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춘천시는 아들 3곳 주변 시유지 4만7000㎡를 민간 투자 유치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호텔까지 유치되면 유동인구가 연 수백만명에 달해 대형 상권이 형성되고 민간의 개발사업도 촉진, 새로운 관광타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 2016.2.2(화) 건설경제 】

분산된 공사계약 규정,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통합정보 포털 서비스 시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약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일부터 '공공정보화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정보포털(egov.nia.or.kr/rule)' 서비스를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 200여개에 달하는 규정·지침·가이드를 담은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지금까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돼 왔다.

통합정보포털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종의 규정·지침·가이드를 다양한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CBSI 추이



건설업 체감경기 14개월째 가장 '쌀쌀'

건산연, 1월 CBSI 13.2P '↓'

건설업계의 연초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16년 1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보다 13.2p 하락한 73.5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공사 발주가 줄어드는 연초에는 CBSI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감소폭이 더욱 크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1월 CBSI는 평균적으로 4.9p 하락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가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전월비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다"면서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국발 대내외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CBSI 전망치 역시 78.1을 기록하면서 부진했다. 1월 실적치 73.5보다는 높았으나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2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2월까지의 공사물량이 많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2월에도 특별히 건설경기를 개선할 요인이 예상되지 않아 CBSI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1월 CBSI 실적치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17.3p나 하락한 76.5로 1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역시 15.1p 하락하면서 14개월래 최저치인 47.9를 찍었다.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7.7p 하락한 92.3으로 조사됐다. 김정석기자 jskim@